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15주일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매일미사 책 87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7/20: 성 아폴리나리스 주교 순교자,

7/21: 성 브린디시의 성 라우렌시오 사제 학자,

7/22: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61	217	174	31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차 주	최은미 아네스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문문주, 최은미, 윤지선
차 주	조지연, 김지혜, 장유정

### 헌금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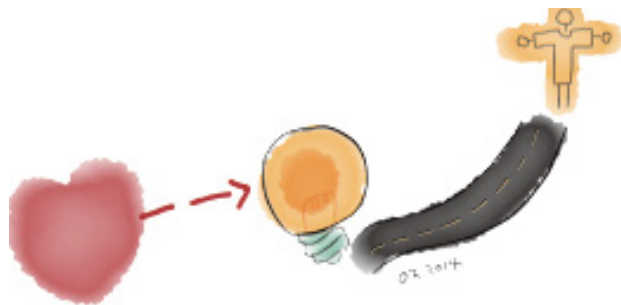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연 요셉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전용진 라우렌시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우금
7/9	65명	404달러	375달러
김태중 (총1세대)			

### 목자의 소리

"신앙의 인식은 계약을 맺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기에 이 앞은 역사 속에서 길을 밝혀 주는 인식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진리와 성실성이 성경 안에서 함께 언급됩니다. 참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해시키실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신앙의 빛」 28항 | 그림 임의준 신부

연중 제15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7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이자 농민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게 하십니다. 농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된 희망을 보여 줍시다.

### 그림 묵상

#### 하늘 나라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태 13,32)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고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하여 우리 안에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0-11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8-23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23<또는 13,1-9>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풍성한 열매 주시는 하느님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세상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로마 1,19-20) 하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하느님의 신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우둔해 허무의 지배 아래 있었고, 멸망의 종살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로마 1,21-22) 이런 세상에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신비, 곧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이는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13,13) 그들은 하늘나라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독서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지 돌아오지 않고, 뜻하는 바를 반드시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신비는 드러날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로 봉독한 이사 55,10-11는 제2 이사야서(이사 40-55장)를 마무리하는 대목으로 오늘 대목에 앞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마치고 약속된 땅으로 되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 키루스라는 임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화답송으로 읽은 시편 65장이 노래하듯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땅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어려운 삶에 떨어 집니다.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회복은 더디기만 했

고,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신 분이 나자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 하느님 말씀 자체이심을 밝히십니다. 이제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늘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은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그 나라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온갖 피조물이 이때를 기다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지만 항상 영광의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이런 세상에 성령을 첫 선물로 받게 되어 하늘나라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음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느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과 충실함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손에 이 끌려 온갖 피조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뿌린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 평화

평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①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②평온하고 화목함’이라 적혀있네요. 과연, 어떤 사람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대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평화란 창조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질서의 실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과 정의로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이라면 이미 우리는 평화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의 분쟁 해결 전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가 제안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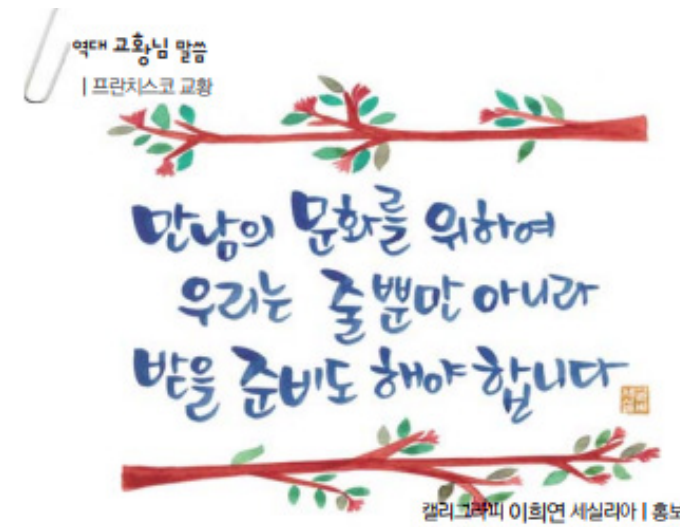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만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사 2,4)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해 다가갈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행동에 앞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평화를 위해 투신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평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현세의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의 결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임금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부활하시어 사랑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기회의 공평함

기회가 공평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기회가 공평해야  
 각자가 오랫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면  
 열매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겠지만  
 준비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 13,3)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